
의지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테오도어 헤르츨

《오래된 새 땅》《Altneuland》

읽는다는 것의

슬픔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작은 새가 있었다.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곧장 우리 안에 갇혔다. 하루하루 사방이 막힌 세상에서 살아가며, 새는 언젠가부터 날갯짓을 멈췄다. 높이 날고 싶다는 욕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언어를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 머물렀다. 우리에게 그 새가 편해 보였다. 순하고 조용하며, 명령에 따르고, 주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어느 날, 새는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기억해낸 것이다. 자신 안에 어떤 세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세계가 단어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새는 '읽기'를 시작했다. 자신을 가둔 우리를 읽었고, 우리 안의 공기를 읽었으며, 갇힌 삶의 구조를 읽었다. 이 이야기는 독해에 관한 이야기다. 문제를 푸는 기술 이전에, '읽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감각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수능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읽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또 어떤 이는 단 한 줄만으로도 세상의 구조를 직관한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정말 재능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떻게 읽는가'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푸는 법'만 강요받은 탓은 아닐까? 어릴 적 우리는 종종 이런 학습을 강요받았다. 학원에서 건네준 복사지는 매일 반복되는 '숙제'였고, 선생님은 "이 책 꼭 읽어. 읽기만 해도 국어 성적은 오를 거야."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작정 읽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몰라도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채 밑줄을 그었고, 물음표 하나 없이 책장을 넘겼다. 그것이 공부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 없는 다독은, 그저 책을 넘기는 손가락만을 훈련시켰을 뿐이다. 생각 없이 읽는 독서는, 오히려 '이해하는 기쁨'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읽는 책'에는 익숙해졌지만,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배우지 못했다. 이 책은 그 오랜 오해를 되돌리기 위한 책이다. 이해 없이 읽었던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만나는 책이다. 단어를 외우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되찾는 책이다.

文明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쏟아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읽는 법을 배운 사람은 드물다.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내용이 낯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 보며, 왜 그렇게 서술되었는가’를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읽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눈앞의 정보를 빠르게 해석하고, 문장의 논리를 따라가며, 저자의 시선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신의 질문을 구성하는 일. 이것은 단지 정답을 맞히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해 다시 묻는 법’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책은 그런 회복을 위한 작은 안내서다.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한 기술서가 아니다. 국어 성적을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삶의 문장을 다시 읽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문장을 구조로 읽고, 문장의 흐름을 인과로 분석하며, 글쓴이의 숨은 목적을 꿰뚫는 시선을 기를 것이다. 때로는 철학자가 되어 저자의 전제를 따지고, 때로는 작가가 되어 문장을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을 읽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읽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위해 쓰였다. 수능 국어 비문학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독해력이 나아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궁금한 사람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 문제의 기술보다 문장의 진심을 읽고 싶은 독자들.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러나 늘 벽 앞에서 멈추던 사람들.

당신이 그렇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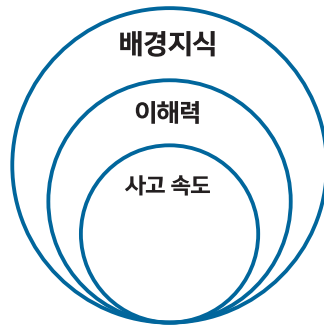


1일 차	[철학] 맹자의 성선설과 정치철학	15
2일 차	[사회] 뒤르캄의 규범 이해	18
3일 차	[정치] 벤담과 공리주의의 사회적 파장	22
4일 차	[윤리] 롤스의 규범적 구성주의	25
5일 차	[형이상학] 칸트 도덕철학의 형식주의 구조	28
6일 차	[철학] 이이의 기질론과 경제적 사유의 접점	32
7일 차	[심리]フロムの 실존적 사회비판	36
8일 차	[철학] 박지원 실학의 구조적 근대성	39
9일 차	[정치] 홉스의 정치적 자연상태론	43
10일 차	[사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과 공공성의 조건	46
11일 차	[철학] 데카르트적 주체의 탄생과 그 문화사적 파장	50
12일 차	[물리] 뉴턴 역학의 감각적 구조	53
13일 차	[정치] 플라톤 철학의 정치적 구조	56
14일 차	[과학] 토마스 쿤 패러다임	59
15일 차	[역사] 신채호의 민족 사유와 근대적 긴장	62
16일 차	[형이상학] 스피노자의 존재론적 일원성과 윤리적 필연성	64
17일 차	[철학] 밀 자유론의 규범적 딜레마	68
18일 차	[문화] 에드워드 사이드	71

19일 차	[사회] 루소의 계약론적 존재구성	75
20일 차	[정치] 정약용의 경제학적 사유 구조	78
21일 차	[사회] 맥루한의 미디어 존재론	82
22일 차	[화학] 라부아지에의 화학 혁명과 지식 언어의 전환	86
23일 차	[정치] 공자의 정치윤리적 언어관	90
24일 차	[언어] 흄볼트의 언어적 인간관과 자유의 정치구조	93
25일 차	[도덕] 톨스토이의 도덕적 부정부주의	96
26일 차	[철학] 피히테 철학의 능동적 자기근거화	100
27일 차	[미학] 장자의 해체적 사유 구조	103
28일 차	[역사] 헤겔 부정을 포함한 사유의 형식	106
29일 차	[언어학]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전환	110
30일 차	[경제] 제레민 리프킨 의식 진화와 경제 구조의 재구성	114
	실전 지문 독해 연습 1	120
	실전 지문 독해 연습 2	122
	실전 지문 독해 연습 3	124
	실전 지문 독해 연습 4	126
	실전 지문 독해 연습 5	128
	사유의 노트	130

책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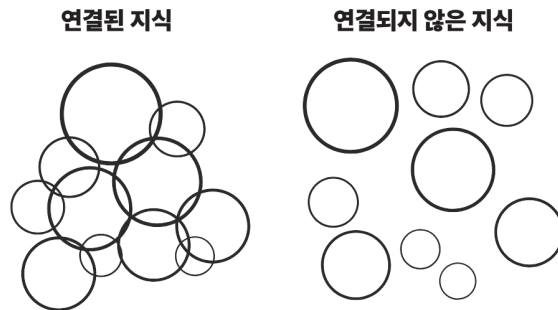
잘 읽기 위해선,
배경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사고 속도가 있어야 한다.



가 배경지식

1) 연결된 지식

연결된 지식이란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 'OO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여 **지식의 망을 촘촘하게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스키마(schema)**'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스키마는 경험과 학습으로 축적된 개념·관계·규칙의 구조화된 지식 틀로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예측하며 기억하게 하는 인지적 지침입니다. 저는 배경지식 학습의 이유를 이 스키마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데서 찾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의 의미를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흠스의 자연상태·사회계약 관점과 대비·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독해는 깊어집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개별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주는 촘촘한 연결망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 틀과 망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이란 지식의 깊이와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문을 봐도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로 연결된 배경지식을 뜻합니다.

문명은 30명의 철학자를 바탕으로 이러한 연결체 지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문 자체가 배경지식이자 연결체 지식이 되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1 맹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남의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이 씨앗이 외부 세상의 욕심이나 시련에 맞설 때마다 제대로 물과 햇볕을 주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 버릴 수 있다. 맹자는 마음속 착한 씨앗을 키우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꾸준한 노력으로 보았으며, 이 노력을 멈추고 단순히 타고난 본성만을 믿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바탕을 가졌어도 결국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나쁘다고 하여 착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쓸모없는 것으로 내버리는 태도와 같으므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다.

따로 배경지식에 시간을 내어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제대로 완주하기만 해도 머릿속에 사고의 틀이 형성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문과 철학자의 핵심 사상을 쉽게 연결해 소개했으니, 30명의 철학자와 관련 개념을 오가며 중복되는 사유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일 차 ‘맹자’를 끝냈다면 2일 차에는 맹자의 지식을 가지고 ‘뒤르켐’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연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그리스·서양 철학을 ‘이성과 감성의 긴장’,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라는 시선으로 익히면,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틀을 얻게 되고 어떤 철학자를 봐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지식의 양과 깊이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배경지식은 끝이 없으니 계속 더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묻지만, 이는 제가 말하는 스키마와 연결된 지식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스키마는 개별 사실을 무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재를 만나도 상위 개념을 통해 관련 지식들을 연결·해석하게 해 주는 최소한의 구조화된 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 교재는 서양철학·동양철학·사회학을 가로지르는 가장 핵심적이고 큰 상위 개념들을 중심으로 30인의 사상가를 선별하여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문명」 교재만으로도 각 사상과 개념이 서로 엮이는 지식의 망을 세울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설계했으며, 양의 무한 확장이 아니라 핵심 스키마의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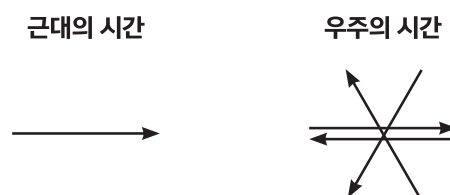
2) A vs B 사고의 틀

사고의 틀은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요소입니다.

지문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분명 단어도 알고, 문장 속 개념이나 구조도 이해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잡히지 않는 느낌, 잘 와닿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대부분은 ‘사고의 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스텔라」를 수차례 감상해도, 한 학생의 머릿속에 ‘시간은 선형적으로만 흐른다’는 단일한 틀이 고정되어 있다면 영화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상대성이론 맥락에서 시간은 관성계와 중력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우리의 일상적 상식—지구에서 체득한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는 시간’—은 오히려 다른 관점을 차단해 **오독**을 낳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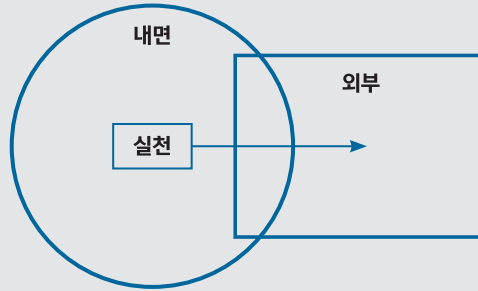


「인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코브가 현실 → 꿈(1) → 꿈(2) → 꿈(3)으로 내려가며 서로 다른 시간 스케일과 인과를 보여 주지만, 이를 표면적 사건 나열로만 따라가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의식/무의식 도식**이라는 사고 틀을 적용하면, 각 층위의 장면이 **의미 있게 조직**되어 보다 쉽게 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문 속 문장이나 지문 전체에서 뽑아낼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이미지로 가시화했습니다. 거대한 학문으로서의 논리학을 외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머릿속에 흐릿하게 있던 질서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틀이 없던 학생들에게는 기본 틀을 심어 주는 장입니다. 또한, 독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개 분야의 사고의 틀 예문을 실었습니다.

사고의 틀

내면 vs 외부 +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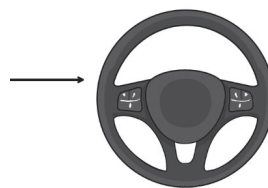


이 장을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틀’을 외우려고 반복하지 마세요. 틀의 종류는 매우 많고, 사실상 무한합니다. 어떤 문장도 얼마든지 다른 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체화의 대상입니다. “이 책의 틀 30개를 모두 외워서 나중에 하나씩 적용하겠다”가 아니라, 한 번씩 보고 익힌 뒤, 다른 문제집이나 실제 지문을 풀 때 ‘도구’로서의 틀을 꺼내 쓰는 느낌을 목표로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자기만의 틀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무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단어 표상화

표상화란 아래 그림처럼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가 그 기를 주재함으로써
인간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



주재하다

누군가는 ‘주재(主宰)’라는 단어를 기표(텍스트) 자체에만 붙잡히지만, 최상위권 학생은 보는 순간 ‘운전대를 잡고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이미지’를 떠올려 텍스트를 즉시 처리합니다. 시간 절약과 이해 심화 측면에서 이미지화는 큰 장점을 갖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어 표상화 파트에서 지나치게 쉬운 기초어와 불필요한 난해어를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지면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기초 단어를 굳이 표상화하느라 시간을 쓰는 비효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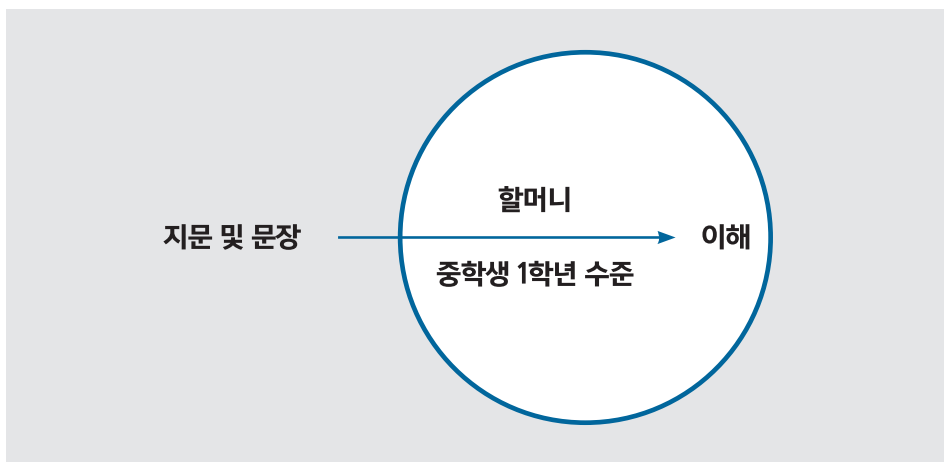
개정판 문명은 지문을 읽고 곧바로 단어 표상화로 넘어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예시 표상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시는 참고용이므로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고, 본인만의 이미지로 자유롭게 그리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이 너무 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그려 둔 이미지는 그 단어를 만날 때마다 자동으로 떠올라 사고를 돕습니다(집중하여 그렸다는 전제하). 따라서 많지 않은 표상화 대상어는 모두 그림으로 남기길 권장합니다.

나 이해력

1) 이해란

이해력을 다루기에 앞서 “이해”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논문마다, 그리고 맥락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학습과 독해의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란,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동년배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과 ‘할머니’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가 읽은 지문이나 문장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준을 낮춰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지문은 이해한 것으로 보아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해”를 둘러싼 논의—지식과의 연결, 지문을 100% 이해할 수 있느냐는 문제, 추론·논리 독해의 원리—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이론과 기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지문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글쓴이의 모든 의도를 “논리적으로” 완벽히 복원하는 일도 그 어떤 강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수험 전략으로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용적으로 정의합니다. 지문 독해에서의 이해란 곧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이 막힌다면 아직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명이 된다면, 수험에 필요한 이해 수준에는 도달한 것입니다.

2) 명료화

독해에서 “명료화(Clarification)”는 지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명료화란,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문장을 ‘자신의 언어’로 ‘위계를 낮춰’ 분명하게 풀어 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내가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문장을 완벽히 재가공하는 데 있습니다.

명료화의 2단계 사고 과정

제가 '명료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 두 번의 사고 과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줄이려고만 하면 표면적 이해에 그치게 됩니다.

[1단계: 확장적 풀어쓰기 (위계 낮추기)]

먼저, 위계가 높고 추상적인 문장을 만났을 때, 이를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며 가장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최대한 길게 풀어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략된 논리나 전제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2단계: 핵심적 재압축 (본질 추출)]

그다음, 자신이 쉽게 풀어쓴 그 문장(들)을 다시 바라보며, 불필요한 수식이나 예시를 제거하고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본질)만을 추출하여 한 문장으로 '축약'합니다.

이 두 번의 인지적 부담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문장은 '안다고 착각하는' 문장에서 '내가 소화한' 문장이 됩니다.

예시: 2단계 사고 과정의 적용

[원문]

홉스는 절대 권력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의 철학은 정치 권위의 정당성이 오직 계약적 합리성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무제한성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둔 규범적 제안이기도 하다.

[1단계: 확장적 풀어쓰기 (위계 낮추기 - 사고 과정)]

홉스가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네. 이 권력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다 죽겠다" 싫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모두 함께 합의(계약)해서 만들어준 거네. 즉, 이 절대 권력은 통치자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곰직한 폭력을 막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이구나.

[2단계: 핵심적 재압축 (최종 명료화)]

홉스에게 절대 권력은 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네.

학생들 중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내용이 사라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지문의 내용을 표면적 기표(낯익은 용어)로만 따라갔을 뿐, 각 문장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는 '명료화'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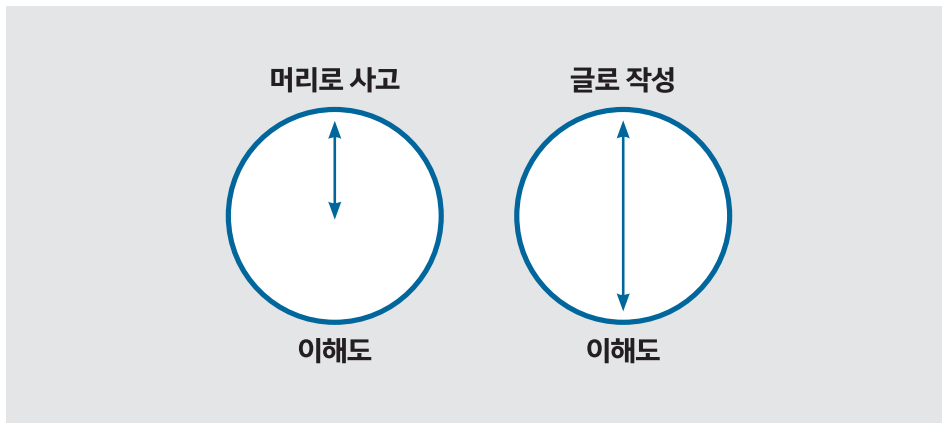
명료화는 단순히 머리로 문장을 요약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완벽히 소화한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문명 개정판 명료화 훈련에서 “쓰는 행위”는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글을 읽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직접 적어 보라”고 하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보의 입력(input) 과 활용 가능한 출력(output)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과 글로 쓸 수 있는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메타인지(meta-cognition) 입니다. 메타인지가 낮으면 무엇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글로 적는 행위’는 메타인지를 키웁니다. 손으로 쓰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이해를 가장 낮은 지점까지 끌어내려 확인한 뒤, 다시 문장 단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림으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해가 중간까지만 내려감

두 번째 그림: 이해가 바닥까지 내려감



핵심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까지 이해를 떨어뜨린 뒤, 문장으로 재구성하여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연습할수록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고 시험 상황에서도 즉각적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필기(쓰기)로 검증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만 처리하면 주어·서술어가 빠진 미완 문장을 남발하기 쉽고, 이는 곧 이해 부재와 같습니다.

이 교재는 지문의 모든 문장을 한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여러분이 직접 ‘쓰는 명료화’를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